

성폭력 심각... '부끄러운 남성들'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오직 수행의 기쁨 속에 살았다. 그런 그에게 어느날 한 친구가 책을 보내와 기쁜 마음으로 읽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책을 보니 쥐가 표지를 잡아 먹었다. 그는 쥐를 쫓기 위해 고양이를 구했다. 고양이에겐 우유를 먹이기 위해 고양이를 구했다. 또 혼자 들을 보기 함들어 여자를 들이고 그녀를 위해 집을 지었다. 몇 년이 지나자 귀여운 아기가 생겼다. 더 이상 그는 수행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불교설화의 한 토막으로, 단 한 번의 사소한 집착이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준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사건들 역시 단 한 번의 탐욕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다. 더욱이 성추행이 일어난 것은 물론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性)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터져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추행 사건은 일반 국민에게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전 총선연대 대변인이었던 장원세와 이선 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해 학과 여교조를 성추행한 교수, 여교사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 환자를 추행한 의사 등 시민운동가에서 대학교수에게까지 만연해 있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지도층 인사 부도덕성 '물의'

성추행 상담 매년 급증

"여성 경시 사회풍조 개선"

또 육체적 성폭력 외에도 직장과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언어를 통한 성희롱도 위험수위를 넘어 서면서 사회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직면한 듯한 느낌을 준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달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직장내 성추행 상담건수는 모두 586건으로 전년도의 340건에 비해 무려 7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부도덕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우리사회 특유의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가장 큰 사회적 배경으로는 유교주의에서 비롯된 뿌리깊은 남존여비 사상을 꼽을 수 있다. 여성을 인격체로 배려하지 않는 풍토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만연

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영웅호색처럼 능력있는 남성일수록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경시하는 경향이 묵인돼 온 사회적 관행도 문제다.

또 학벌·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여성을 술자리에 동석시키는 우리 사회의 통상적 문화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밤 질펀하게 벌어지는 접대문화는 근본적으로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가 성희롱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도 이유로 지적할 수 있다.

<열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왕이 거동하면 신하가 뒤따르듯 애욕이 가는 곳에는 항상 미혹(迷惑)이 따른다. 슬한 땅에 잡초가 무성하듯 애욕의 습지에는 번뇌의 잡초가 무성하다. 애욕은 꽃밭에 숨은 독사와 같다. 사람들은 꽃을 탐해 꽃밭에 들어가 꽃을 꺾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실 때 마왕 과승이 성도를 방해하고자 그 무기로 욕망을 동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마침내 정각을 얻었다. 욕망은 인간을 어떠한 악도 스스로없이 자행하도록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낼 때 얻어지는 기쁨 또한 비할 데 없이 크다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생명 주고받은 인연인데

살해의 원인이 단지 부모가 미워했다고 한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은 아니다. 유학까지 갔다는 부자집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생활고를 비판한 40대 청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패륜적 행위가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타락이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눈에 파괴되는 인간성, 실종된 사회 윤리와 기강, 가정 교육의 부재 등 진단도 여러 가지였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도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자탄과 함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 또는 지도층의 성추행문제 등에서 보듯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불감증이 그 수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천문이라고 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되는 관계다.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맺어준 관계다. 생명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송고함이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뜻밖의 도리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없이 견고했던 것이다.

살림 내용이 부족하고 미천한 신분의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의 말이라면 순종할 줄 알았고 나무라면 반성할 줄 알았다. 따듯한 회초리의 쓰린 아픔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살림 부모의 꾸지람이 조리에 어긋나고 이치에 합당치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부모가 안쓰러워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제 회초리는 꺾인 지 오래고, 가정의 무게 중심은 자식에 게로 옮겨갔다. 가정의 행사는 아이들 중심이다. 할아버지 제사에는 빠질 수 있어도, 학원은 빠지지 않는다. 단것만을 먹어 본

자식은 그것을 먹기 위해 부모가 먹어야했던 쓴 음식 맛을 모른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 그만두고라도, 부족하면 부모를 원망한다. 공부 못하는 것도 부모 탓이고, 얼굴이 못난 것도 부모 탓이다. 급기야 자신을 왜 낳았느냐고 대든다.

무엇이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었을까.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천만원경품 총경연대회'는 바로 이러한 실상을 그대로 말해준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서 천만원의 경품을 갖고 춤추기 시합을 벌이는데, 선발기준은 춤출수록 더 했다. 거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은 "도덕을 지키면 누가 돈을 주느냐"고 했다.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일까. 이 시대 내그러진 우리의 단면이다.

세종 때 진주에 사는 김화라는 자가 부모를 죽이는 패륜적인 일을 저질렀다. 이 사실은 곧바로 조정에 알려지고 조정 중

신들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조정에서 논의된 중심 내용은 이 사람을 어떻게 벌주고 처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흠어진 사회 기강을 어떻게 진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도덕성 붕괴...패륜 속출 논의 끝에 세종은 지성으로 부모를 섬긴 효성스러운 인물을 선격하여 <효행록>이라는 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간행해 하여 백성들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그 효행 사실을 글로 적고 그림으로 그려 보고 모르는 사람까지 그것을 글과 마음 속으로 깊이 깨달아 효심이 우러나올 수 있게 한 것이다.

그 시절에는 잘못을 꾸짖을 사회적 기강이 서 있었고 도덕적 완벽을 추구하는 꿈은 선비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덕성 붕괴는 아래 위가 없는 세태다. 지금 세종 때 부모 자식간에 지침이 되었던 <효행록>을 읽으라고 내놓으면 코웃음을 칠 것이다. 누구에게 원망의 화살을 들릴 것인가. 기밀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의 철저한 성찰밖에 없는 비정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세상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창경

(신구대 출판미디어과 교수)

국내 유통 약품 "12%만 약효"

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 "국민건강 위협"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약품의 상당수가 약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의약품 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2천5백여 품목에 대해 '약효 동등성시험'을 한 결과 12.1%인 296품목만이 약효를 인정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는 우리가 약으로 알고 먹었던 '약'이 약이 아니라는 얘기여서 충격적이다. 실제로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먹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이 아니라 '독'을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어떻게 국민건강을 이 정도로 방치해왔는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의약품 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약 아닌 약'을 계속 먹어왔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품목의 절반 가까이 원재품을 복제한 제품들이어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원재품이나 복제제품에 따라 값이 크게는 10배, 약효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정부가 비용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복제제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질 낮은 의약품이 관측되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처님은 종종 대의왕(大醫王)이라고 불리운다. 중생의 아픈 구석구석을 진단

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었다. 이것을 대의설법 혹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한다. 이 처방을 받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거나 건강하게 됐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이나 약을 찾는다.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나 약을 얻기 위해서다. 바로 부처님의 응병여약 처방을 찾듯이,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먹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중야합경>에 "약을 쓰는 것은 이익을 얻거나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병의 괴로움을 없애고 생명을 간직하기 위해서이다"는 말이 있다.

이번 기회에 '무늬만 약'인 약효없는 약을 모조리 뿌리뽑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바른 도리다.



"새만금 간척 중단"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전북도민·환경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황태연이 어른을 상정하는 폐선박을 이용해 이색 시위를 벌였다.

설문조사 핑계 '사기 조심'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할인 행사 초청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특별한 가격에 물품을 사가도록 강매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지만 최근까지 70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 이상 늘어났다. 또 기업홍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가 접근해 물품을 떠안겨 피해를 본 사례도 181건으로 계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백유경>의 "장사하면서 법당지 않은 일을 하면 미래세상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마치 두 눈앞이 빠지는 것과 같다"는 악덕 상도의의 파보를 사기업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여성 흡연 늘고 있다

우리나라 18~19세 여성의 흡연률이 10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여성흡연이 크게 늘고 있다. 또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한 연령은 대학 시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18세 이상 남녀 1,466명을 대상으로 흡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990년 1%에도 미치지 못했던 18~19세 여성 흡연률이 올해 9.5%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시작 연령은 대학생 연령인 19~24세가 55.3%로 가장 많았고 16~18세(고등학생) 24.1%, 15세 이하(중학생) 8.2% 등으로 나타났다.

Large advertisement for 'Dalma-do Sun-gum Card' (달마도 순금카드) featuring various gold products and services. Includes text like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정통 달마조사도의 대가(大家)이신 오인(悟印)법사님의 달마도 원본 작품', and '달마도 순금판 액자'. It also features a vertical banner on the right that says '행운과 氣를 선물하세요'.